

## 전후 일본의 ‘표상’ 보면 ‘보수’가 보인다

· 서울대 일본연구소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일본의 정치, 경제 등을 논할 때 “일본사회는 워낙 보수적이어서…”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것은 단지 극우 정치인의 망언, 과거사 왜곡 같은 정치적 행동을 두고 하는 말만은 아니다. 일본사회에 스며 있는 ‘일상적인 감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뜻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일상의 보수적 감각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낸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서울대출판문화원)은 군사대국화, 우경화 또는 극우로 연결되는 보수 정치보다 전후체제와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일상의 보수적 감각에 주목한 연구다. 이 공동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일상의 보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 위해 문화·예술이나 정치적 상징들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분석한 것은 시, 영화, 만화 작품들이다. 이들은 이를 ‘표상’이라 부른다. 표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에 접근하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실마리 같은 것이다. 그러한 표상이 역으로 현실을 만들기도 하니까 표상 연구의 의미는 크다.



오키나와전투에 중군간호부로 나섰다가 숨진 여고생들을 소재로 한 반전영화 <히메유리의 탑>의 한 장면.

나카노 시게하루의 1929년 작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쇼와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에서 추방당하는 조선인과의 이별을 그린 시다. “...그대들은 비에 젖어서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의 천황을 생각한다/.../그의 머리털 그의 좁은 이마 그의 안경 그의 수염 그의 보기 흉한 곱사등을 눈 앞에 그려본다/.../조선의 남자이며 여자인 그대들/머리끝 뺨끝까지 곳곳한 동무/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가서 그 딱딱하고 두터운 미끈한 얼음장을 두드려 깨라/.../그리고 다시/해협을 건너 뛰어 돌아와/.../그의 먹살을 움켜쥐고/.../뜨거운 복수의 환희 속에서 울어라 웃어라.”

이 시는 추방당하는 자의 일왕을 향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민족을 초월한 계급 연대를 통해 일본 내셔널리즘의 상징인 일왕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왕 암살까지 암시한다. 하지만 전후 개작된 이 시에서는 일왕에 대한 묘사가 사라지고, 일왕 암살 암시 부분도 삭제된 채 읽히게 된다.

일본연구소의 서동주 HK교수는 “(전후적 상황에서 시의 개작은) 초출(원작 형태의 시)이 간직한 ‘탈내셔널리즘의 지향성’을 내셔널리즘의 문맥 속으로 왜소화시켰다”고 말한다. 또한 “시에서 드러난 조선인과의 연대에 대한 지향은 일왕의 신민일 수밖에 없는 시인의 무모한 시도의 산물이자 일왕에 대한 ‘충성’과 ‘반역’ 사이에서 방황하는 시인의 분열적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해석되면서 일거에 ‘보수주의’ 담론 속으로 포섭되었다”.



‘비 내리는...’이 제국주의 시절 탈민족주의가 전후에 일본 민족주의로 변화하는 보수적 표상을 보여준다면, 영화 <히메유리의 탑>(1953, 1968, 1995)은 전후의 ‘반전 평화’ 내러티브가 어떻게 보수 의식을 치장하는데 쓰이는지 보여준다. <히메유리의...>는 1945년 오키나와전투 당시 중군간호부 역할을 하다 죽어간 오키나와 여고생 123명을 소재로 쓰여진 소설 원작의 반전 영화로 몇 차례 제작돼 방영됐다. 조선인 1만명(추정)을 포함, 10만여명이 숨진 오키나와전투에서 유독 123명 이 영화가 반전 영화의 대표가 된 것은 무엇을 뜻할까. 강태웅 광운대 교수는 가해자이기보다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일본의 반전평화 담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순진무구’한 젊은 여성의 희생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피해가 강조되었고, 일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전’한다는 보수적인 ‘반전 평화’관”의 발로이고, “오키나와와 본토의 대립을 은폐하고, 일본이 벌인 전쟁이라는 점과 일본의 가해성을 망각”시킨다는 것이다.

만화 <시마 과장>은 전후 ‘샐러리맨’ 보수주의를 대표한다. 이 만화는 샐러리맨의 삶에 대한 ‘사실주의’적 서술과 시각 이미지 묘사로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회사 중심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드러낸다. 시마 과장은 해외로 배치되고 여성들과 성적으로 관계하면서 타자화된 아시아를 만들기도 한다. 한정선 고려대 교수는 “샐러리맨 보수주의는 현실과 환영 사이에서 기업에 귀속되는 개인의 형성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재생산한다”며 “동시에 관리된 일탈과 유희를 허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사회질서를 현대 일본에서 구조화한다”고 말한다.

민족주의, 반전평화, 기업주의 외에도 전후 일본 보수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만주’ 표상(임성모 연세대 교수), 일왕 중심의 가족국가론에서 온 ‘혈연 이데올로기’ 표상(김범수 서울대 BK조교수), 그리고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전후체제 해체 후의 ‘국가’ 표

상(장인성 서울대 교수)을 통해 분석된다. 일본은 ‘우리’ 안에 들어온 특별한 ‘타자’다.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 한국사회의 일상화된 보수감각은 어떤 모습일까.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0-04-30 17:57:43 | 수정 : 2010-05-01 00:05:40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